

Global **No.1** Panel Group **KIRIN**

# Why **KIRIN**?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  
글로벌 넘버 원 패널 그룹, 기린산업!!

## Global No.1 Panel Group KIRIN

Established in 1981 as Korea's first system panel company, KIRIN Industrial Co., Ltd. KIRIN has now grown into a global company operating in 50 countries throughout the world, from the South Pole to the Sahara Desert.

KIRIN is a unique panel solution company in the industry field, which goes beyond developing, manufacturing and providing service on the best interior and exterior insulator panel materials. KIRIN has a dream, hope and courage to become the Global No. 1 Panel Group which continuously develops with our clients and wins infinite trust from the society.

## KIRIN PANEL LIST

**WALL SANDWICH PANEL**  
POLY PANEL, GLASSWOOL PANEL,  
FINE EPS PANEL,  
INOVA PANEL, COLD STORE & FREEZER

**WALL Interior Materials**  
MASTA/SGP PANEL, FABRIC PANEL

**WALL METAL PANEL**  
POLY METAL-F.A, ROCK WOOL METAL-F.A,  
DESIGN METAL, CRYSTAL METAL,  
SUPER METAL, DUAL COMPOSITE PANEL

**ROOF DECK SYSTEM**  
POLY/ GLASSWOOL DECK, ACO DECK,  
TPO/ PARADIENE DECK, K-115 PANEL

**ROOF ZIP SYSTEM**  
MONO ROOF, OMEGA ROOF,  
LIGHT ROOF, SOLAR/ POWER PANEL

**MODULE SYSTEM**  
CLEAN ROOM, MODULE HAUS,  
DOOR/WINDOW

KIRIN's Architectural Materials  
Overseas Branches

Korea, USA, China, Brazil, India, Indonesia, Libya,  
Mexico, Morocco, Philippines, United Arab Emirates, Vietnam

세계적인 건축 내외장재 선도기업 (주)기린산업 KIRIN Industrial co., Ltd.

기린산업

검색

상담문의 TEL. 1644-7166, 041-354-7166





## Architecture & design Newspaper

AN Newspaper Architecture, Space Design, Art & Lifestyle, Culture & Design Newspaper, AN news Group AN Press, World Design Media Forum, AN Architecture Design Award, AN Design Forum, AN agent

거대한 동굴과 물결 무늬형 책장으로 디자인된 도서관, **톈진 빈하이 도서관(Tianjin Binhai New Area Library)**... 건물 내부로 볼 형 강당을 품고 계단 지형을 닮은 캐스케이드형 아트리움이 돋보여, 계단과 좌석, 천장이 유연하게 이어지고 겹쳐진 다이내믹한 독서 공간의 절묘한 조합, 이끼 덮인 푸르른 목초지와 숲을 형상화한 **저트그룹 렉처 홀(Jut Group Lecture Hall)**

스페인 마요르카 언덕 위에 자리

한 웨어 이글스 데어(Where

Eagles Dare)... 하늘과 연결된 절벽 위의 독서구 동지처럼 비상하는 듯 날렵함을 뽐내는 외팔보 구조, 베이징의 전통 가옥 쓰허위안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후통 캡슐 호텔(Xiezuo Hutong Capsule Hotel in Beijing)**, **지룸(ZIROOM Hotel)**... 커다란 나무 그늘에 조성된 2개의 중정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해 숙박과 전통지구를 조망하기 위한 곳으로 꾸며내, 광동성 우장구의 **리버사이드 아카데미 앤 에피그래피 뮤지엄(Riverside Academy & Epigraphy Museum)**... 전통적인 장부구멍과 장부와의 관계성을 활용해 건물의 볼륨감을 완화시켜줘, **청두 항공우주 초합금 기술 캠퍼스(Chengdu Aerospace Superalloy Technology Campus)** ... 기존 지형의 흐름을 유지한 채 복합 건물과 클럽, 식당, 기숙사, 수변공간의 혼재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배치해

도시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미래 도시 확장의 실험적인 제안, **애고하 우스와 수직 마을, 넥스트 후통**... 2017 도시건축 바이시티 비엔날레(UABB, Bi-City Biennale of Urbanism Architecture), 새로운 사회와 디지털 환경의 창의적 생각을 담아낸 **선전 디자인 뮤지엄(Design Museum Shenzhen)**... 2개 층에 걸쳐 상호 연관성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 예술링겐 지형을 픽셀화하여 도시와 주민들의 서로 다른 정보를 담아낸 **에슬링겐 더 마일스톤(The Milestone, Esslingen)**... 도시의 역사와 미래를 보여주는 동시에 주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색다른 복합용도 건물로 계획돼, 다각화된 유연성으로 독특한 입면을 연출하는 **모스크바 실루엣(Silhouette) 주상복합**... 모듈형 시스템을 통한 공간의 다양성과 창의

크기에 따라 조절된 입면 패턴의 돋보여

하이브리드 아트 스페이스(Hybrid Art Space)의 가능성을 열어준 **베이징 가디언 아트센터(Guardian Art Center, Beijing)**... 지역의 전통성과 역사적 흔적을 적층시키고 주변과의 관계성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녹여낸 유연한 공간, 모스크바의 시골집 소나무 정원에 들어선 현대적인 정자 디자인, **가제보 2071(Gazebo 2071)**... 기하학적인 배치와 다이내믹한 볼륨감으로 구현된 파빌리온 공간, 중국 지린성 송화 호수를 배경으로 들어선 이색적인 전망 플랫폼인 **스테이지 오브 포레스트(STAGE OF FOREST)**... 숲의 경계에서 수평성과 조망성을 극대화하고 수직적 역동성을 꾀한 캔틸레버형 매스가 돋보여, 자연과 공생의 관계를 추구한 입체적인 복합 개발 베트남 호지민을 대표하게 될 333m의 초고층 빌딩 **엠파이어 시티(Empire City)**... 이색적인 공중정원이나 전망 공간인 하늘 숲과 클라우드(Cloud Space), 계단식 지형의 특색을 반영한 포디엄 정원을 통해 자연과 공존하는 개념을 제시해, 채석장 암석의 불규칙한 모습과 기후 조건을 감안한 경사 지붕을 지닌 4개의 볼륨의 공간, **스페인 스톤 클럽하우스(STONE CLUBHOUSE)**



moonlight-blue\_권혜정 작가

**한국건축가협회 제31대 강철회 회장** 취임, 건축계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건축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이태은 회장** 문화적 밀알과 같은 역할로 관련 분야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 **제3회 한국문화공간상**... 롯데콘서트홀, 현대카드 쿠키라이브러리, 옥상밭 고추는 애, 목련리와 애국지사 산물 손양원 기념관, 굿모닝하우스&카페와 소다미술관, 화계의 집, 별마당 도서관과 사용자 늘추계소가 각각 수상, **제24회 서울리빙디자인페어**, '따로 또 같이, 생' 활을 잇다! 커넥티드 홈(Connected Home)이라는 주제로 열려, **한국공간디자인단체총연합회 제2회 따뜻한 공간상**에 '세이브 더 칠드런 농어촌 놀이터 신축 지원 사업' 수상... 농어촌 지역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놀 수 있는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사업, 정석현·권혜정의 **'버려진 것들의 초상 전'**, 건축가 김석환의 북한산국립공원전경 전

안정원의 발행인 칼럼\_뜨거운 실현

거대한 동굴과 물결 무늬형 책장으로 디자인된 도서관,

톈진 빈하이 도서관(Tianjin Binhai New Area Library) ...

건물 내부에 볼 형 강당을 품고 계단 지형을 닮은 캐스케이드형 아트리움이 돋보여, 계단과 좌석, 천장이 유연하게 이어지고 겹쳐진 다이내믹한 독서 공간의 절묘한 조합



지식의 보고라고 불리는 도서관이 점차 새로워지고 있다. 책을

주제로 다양한 장르의 상품과 공간이 절묘하게 결합되고 있는 추세다. 예술, 요

리, 디자인 등의 전문적인 책을 특화시킨 독서 공간에서부터 카페와 커뮤니티

공간, 테이블을 겸한 편안한 좌석, 1인용 독서 공간, 다채로운 생활용품, 아이

패드를 활용한 이북시스템 등을 갖춘으로써 다기능 복합 문화공간으로의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빈하이 도서관 역시 중국 허베이성의 톈진시 빈하이 문화센터지구 내에 들어선 물결 무늬형 이색적인 책의 공간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33,700,0㎡ 면적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평범한 상가형 건물이지만, 가운데 자리한 커다란 아트리움은 캐스케이드(cascade)형의

## 'STAGE OF FOREST'

Stage of Forest, located at Songhua Lake Resort in Ji Lin, is situated on a hillside between the forest and the slope. The site is surrounded by luscious greenery in summer and covered by an overwhelming white snow in winter.

중국 동북부 지린성 송화호 리조트의 숲 경계면 사이의 언덕에 들어선 스테이지 오브 포레스트는 기존 초목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플랫폼에서의 조망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식으로 디자인되었다. 스테이지 오브 포레스트의 공간은 건축이 자연의 일부가 된다는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성을 충실히 모색하는 건축가의 의도를 잘 녹여내고 있다. 건물은 전망 플랫폼이나 전시회나 회의, 워크숍과 이벤트 등으로 활용된다. <Architects\_ META-Project>

YTN PLUS

정가 10,000원



page 11

MARCH 30, 2018. 건축디자인 대표 네트워크 신문 >>

연속된 책장을 머금고 있다. 흡사 자연의 신비로운 환경을 무대로 한 폭포와도 같이 물결 모양의 유선형을 이루고 있는 책장의 향연은 3층 높이로 벽면과 천장을 두루 감싸고 있다.

도서관은 공원 옆에 위치하며 MVRDV를 포함해 Bernard Tschumi Architects, Bing Thom Architects, HH Design 등이 설계한 5개의 문화 건물 중 하나이다. GMP가 설계한 유리 캐노피 아래 모든 건물은 공공 통로로 연결되며, 각각의 건물은 정해진 볼륨을 부여받아 설계되었다. 다이어그램에서 잘 드러나듯 설계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건물 가운데 일부를 타원형으로 비워내고 구형 매스를 집어넣었다. 빈하이 도서관의 디자인은 세계적인 건축회사 MVRDV와 지역 건축회사인 TUPDI의 협업을 통해 탄생했다.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3년 만에 설계가 이루어졌다.

건축가는 디자인 전개 과정에서 주변 환경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였고, 햇빛의 조도와 내부에 자연광을 부드럽게 끌어들이고자 테라스와 루버, 스카이라이트의 개념을 살려서 녹여내었다. 건물의 관에 설치된 루버는 커튼형 건틀 외부를 수평으로 촘촘히 두르고 있어 햇빛의 유입을 적절히 조절한다. 동서쪽을 가로질러 건물 한 가운데를 관통하는 타원형의 개방된 매스는 한껏 개방된 도서관의 내부 모습을 비추준다. 투명한 유리벽 안쪽으로 비치는 구형체와 주위로 넘실대는 듯 출렁이는 책장은 조명을 받아 낮과 밤의 다양한 모습을 연출한다. 이러한 캐스케이드형 책장의 절묘한 조합은 폭포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나 경사진 지형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지혜로운 조형 방식인 계단식 건축을 닮아 있다. 책장의 윤곽선은 주변 공원과 외부 입면을 연결하는 루버와 맞물리면서 내부 공간을 햇빛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중정을 의미하는 내부 핵심 공간은 가운데 커다란 구형 매스를 두고, 계단과 좌석, 천장이 겹쳐진 독특한 형상을 자아낸다. 캐스케이드형 책장은 타원형으로 구형체를 감싸 안듯 3개 층에 걸쳐져 책을 가득 채우고 있다. 중앙의 구형체는 볼륨 홀(ballroom hall)로서 교육적 기능을 맡고 있다. 구형 강당 위쪽으로는 원통형 구멍이 높게 뚫려있어 내부 아트리움으로 자연광을 한차례 걸러 끌어들이는다. 캐스케이드를 형성하는 책장의 위아래로 빼곡하게 책을 채워 넣음으로써 마치 책으로 공간 전체가 파묻혀 있는 분위기를 연출한다. 캐스케이드의 공간은 크게 앉아서 책을 볼 수 있는 개념을 기본으로 하지만, 바라보고 생각하고 소통하는 영역으로 나뉘어 이용자들의 기대치를 충족해준다. 중앙의 계단형 캐스케이드에서는 5개의 진입 존을 통해 또 다른 건물 안쪽 영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다채로운 미디어룸 옆으로는 약 1200만권의 책을 저장할 공간이 있다. 중정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건물의 안쪽 영역은 도서관의 연장된 흐

름을 이어준다. 1~2층에는 주로 다양한 열람실과 독서실, 라운지 및 미팅룸, 비디오 및 뮤지 라이브러리 등의 공간이 집중되어 있고, 상부 층은 회의실과 사무실, 비즈니스룸, 휴게실을 비롯해 2개의 옥상 테라스 등이 들어서 있다.

MVRDV의 공동대표인 비니 마스는 “도서관의 내부는 연속적인 서가로 마치 동굴을 연상케 한다”며, “볼 형태의 강당을 건물 내부에 집어넣었고, 책을 주제로 한 도시형 거실을 만들어줌으로써 새로운 공공 공간을 만들어내었다”고 설명한다. 건축가 비니 마스의 말처럼 도서관의 서가는 앉을 수 있는 공간인 동시에 위층으로 접근하기에 편리하게 디자인되었다. 직선과 곡선으로 구현된 서가는 그 자체가 건물의 눈을 형성하며, 읽기와 걷기, 회의와 토론 등의 다양한 용도로 활용된다.

빈하이 도서관은 지난해 10월 개장한 이래 각종 미디어와 SNS를 통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도서관은 중국 그린스타 에너지효율등급 2스타를 획득하며 미래지향적인 도서관으로 손꼽히고 있다. 각종 언론매체에서 역시 빈하이 도서관을 살며시 녹여내었다. 건물의 ‘중국의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으로 칭하며 톈진의 대표적인 도서관 명소가 되고 있다. **▲**

**비비안안 · 김용삼** 편집자, 최정민 · 전예원 기자 Architects\_ **MVRDV, Tianjin Urban Planning and Design Institute** Design\_ **Winy Maas, Jacob van Rijs and Nathalie de Vries** 자료\_ MVRDV, Photos by Ossip van Duivenbode

**Architects** MVRDV, Tianjin Urban Planning and Design Institute **Location** Tianjin, China **Area** 33,700㎡ **Programme** Library **Design** MVRDV - Winy Maas, Jacob van Rijs and Nathalie de Vrie **Design Team** Winy Maas, Wenchian Shi, Maria López Calleja with Kyosuk Lee, Sen Yang, Marta Pozo, Chi Li, Ray Zhu, Ángel Sánchez Navarro, Daehye Suk, Guang Ruyi Tan, Xichen Sun, Michael Zhang, Mariya Gyuurova, Jaime Dominguez Bálgame, Antonio Luca Coco, Costanza Cuccato, Matteo Artico and Tomaso Maschietti **Concept Design** Winy Maas with Renske van der Stoep, Martine Vledder, Kyosuk Lee, Gerard Heerink, Chi Li, Francisco Pomares, Nicolas Lee, Claudia Bode, Sharon Sin, Jaap Baselmans, Herman Gaarman, Hui Hsin Liao, Antonio Luca Coco, Costanza Cuccato, Matteo Artico and Tomaso Maschietti. **Partners Co-Architect** Tianjin Urban Planning and Design Institute(TUPDI), Tianjin, China **Lighting designer** Huayli Janyuan lighting design **Movie** Tianjin Urban Planning and Design Institute(TUPDI)

**MVRDV and Tianjin Urban Planning and Design Institute (TUPDI)** have completed Tianjin Binhai Library as part of a larger masterplan to provide a cultural district for the city. The 33,700m2 cultural centre featuring a luminous spherical auditorium and floor-to-ceiling cascading bookcases not only as an education centre, but also social space and connector from the park into the cultural district.

An oval opening punctured through the building is propped open by the Eye, a luminous sphere with an auditorium, which takes the main stage within the atrium and enlarges the perceived space within. Terraced bookshelves which echo the form of the sphere create an interior, topographical, landscape whose contours reach out and wrap around the façade. In this way, the stepped bookshelves within are represented on the outside, with each level doubling up as a louve.

The futuristic library sits within a sheltered gallery, topped with cathedral-like vaulted arches, which winds its way throughout the scheme. MVRDV's project is surrounded by four other cultural buildings designed by an international team of architects including Bernard Tschumi Architects, Bing Thom



중국 톈진의 빈하이 문화센터지구 내에 자리한 빈하이 도서관은 33,700.0㎡ 면적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이다. 건물 내부에는 거대한 동굴을 연상케 하는 커다란 아트리움을 품고 있어 인상적이다. 캐스케이드형으로 연속된 책장은 흡사 폭포의 자연 환경을 떠올리게 만든다. 계단 지형을 닮은 캐스케이드의 공간은 앉아서 책을 볼 수 있고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되며, 바라보고 생각하고 소통하는 영역으로 나뉘어 이용자들에게 특별한 공간을 선사한다.



(2면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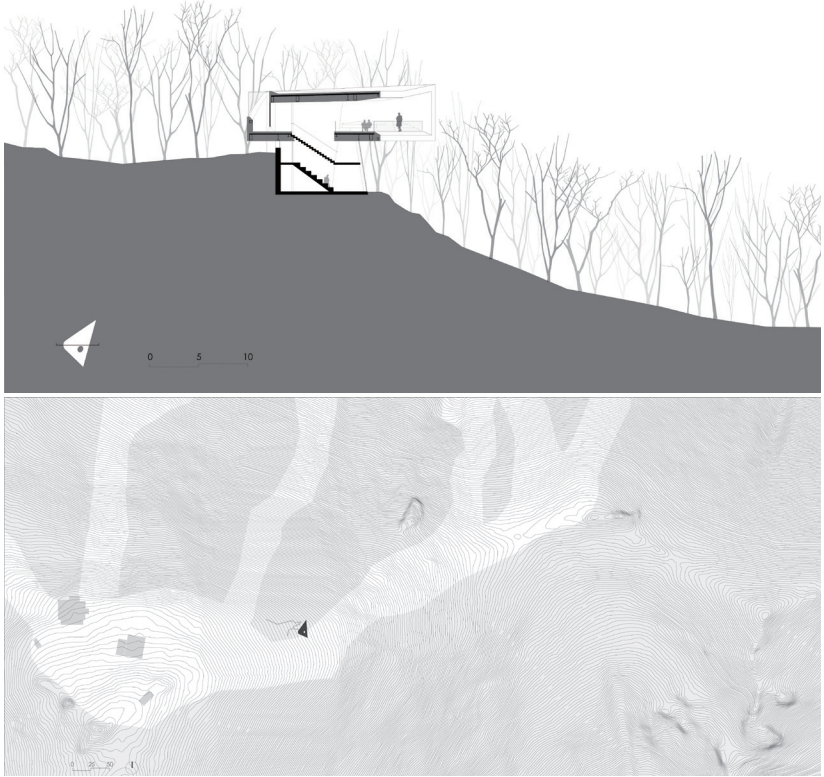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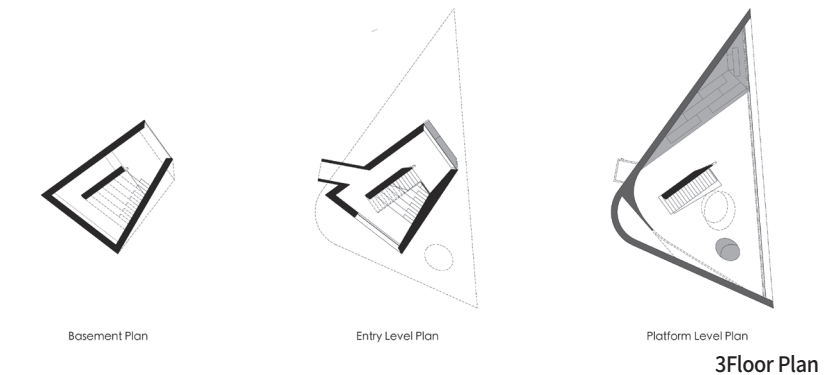


중국 지린성 쑹화 호수를 배경으로 들어선 이색적인 전망 플랫폼,  
‘스테이지 오브 포레스트(STAGE OF FOREST)’... 숲의 경계에서 수평적  
조망성을 극대화하고 수직적 역동성을 꾀한 캔틸레버형 매스가 돋보여



스테이지 오브 포레스트는 중국 동북부 지린성 쑹화호 리조트의 숲 경계면 사이의 언덕에 다소곳이 자리한다. 쑹화 호수 주변은 여름에는 아름다운 녹지로 둘러싸여 있지만, 겨울철이 되면 하얀 눈으로 뒤덮인 압도적인 풍경이 매력적이다. 숲의 무대라는 이름처럼 건물은 기존의 초목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플랫폼에서의 조망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식으로 디자인되었다. 메타프로젝트의 대표건축가 왕 슈오는 광활한 자연을 배경으로 한 스테이지의 개념을 녹여내었다. 계획 과정에서 주변 환경을 면밀히 조사 분석해 삼각형의 매스를 제안했고, 쑹화 호수의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건물을 앉혔다. 산의 정상에서 내려올 때 마주치는 건물은 흙사 물 위에 떠 있는 나무 조각처럼, 기복이 많은 풍경 위에 한껏 솟아올라 있는 듯하다. 저층부의 날렵한 콘크리트 매스를 지기대로 삼아 날렵하게 들어 올려 형성된 상부의 캔틸레버형 무대는 건물에 사투 긴장감마저 부여한다. 목재로 마감된 무대 전체는 몽골 오크 숲을 연상하고 스키 슬로프의 상부와 자연스럽게 관계 맺고 있다. 호수로의 매끄러운 시야 확보를 위한 수평적 조망성과 슬로프의 수직적 확장성을 위한 각도를 감안하여, 목재형 무대와 콘크리트 베이스는 서로 뒤틀려 있는 모양새를 취한다. 이러한 목재와 콘크리트 재료의 이중성과 감각적인 형태의 결합으로 인해 건물의 무게감은 더없이 강조된다. 멀리서 건물을 바라보면 풍경에 녹아든 육중한 매스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가까이 접근하면 그윽한 삼나무 판자의 디테일이 그대로 살아난다. 태양의 각도에 따라 햇빛을 받아 반사된 건물 표면의 질감은 은빛으로 물들어 더욱 생동감을 이어준다.

방문객은 숲의 우드 트레일과 스키 슬로프를 따라 연결된 2개의 루트를 통해 건물



로 접근할 수 있다. 좁은 콘크리트 계단을 따라 이어진 상부 플랫폼 층 내부는 쑹화 호수 주변의 파노라마 경치가 숨 막힐 듯 펼쳐진다. 건물의 모습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안개와 구름으로 둘러싸인 호수 풍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최적의 무대가 된다. 플랫폼 내부는 중심에 계단실을 두고 동측 경관을 향해 한껏 열려있는 평면 구성이다. 플랫폼의 천장과 바닥에는 한 쌍의 타원형 구멍이 이웃하듯 정답게 뚫려있다. 상부의 커다란 구멍은 지붕 위의 햇빛을 끌어들이고, 바닥의 작은 구멍은 투명하게 마감되어 플랫폼 하부를 바라볼 수 있는 장치이다. 두 개의 구멍은 무대 내부의 상하부를 연결하며, 자연과 사람의 흥미로운 상호작용을 북돋아주기에 충분하다. 이처럼 스테이지 오브 포레스트의 공간은 건축이 자연의 일부가 된다는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성을 충실히 모색하는 메타프로젝트의 건축 개념이 잘 녹아 있다. 단순

히 건물을 둘러본다는 개념을 넘어 전시회나 회의, 워크숍과 이벤트 등의 유연한 공간 행위에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베이징을 근간으로 뉴욕, 시카고, 런던, UAE, 주요 동남아시아 도시, 상하이 등지에서 폭넓게 활동한 건축가 왕 슈오는 OMA 베이징사무소의 프로젝트 아키텍처로 몸담았다. 2007년 메타프로젝트와 메타리서치를 설립하여 학제 간의



협력과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건축가는 현대적인 도시의 변화라는 맥락에서 아시아에서 현대적인 대도시의 변화에 있어서 전혀 없이 강화되고 있는 도시의 역동성을 파악하고 현대 도시에서 새로운 프로토타입 커뮤니티를 실현하고자 한다. 건축과 사회 환경 간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는 메타프로젝트는 현대 도시들의 고유한 사회 문화적 잠재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그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건축과 환경, 사회적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 비비안안 · 김용삼** 편집자, **김정연 · 이영호** 기자  
Lead Architects, **Wang Shuo, Zhang Jing**  
**자료** \_ META-Project, Photos by Su Shengliang, Vanke Songhua Lake Resort, Cao Shibiao N

**Lead Architects** Wang Shuo, Zhang Jing/ META-Project  
**Architects & Designers** Wang Shuo, Zhang Jing, Cao Shibiao, Jiang Shuo/Jiang Shuanghui/ META-Project  
**Client** Vanke Songhua Lake Resort  
**Location** Ji Lin, China  
**Use** Viewing platform, event space  
**Area** 277㎡

Stage of Forest, located at Songhua Lake Resort in Ji Lin, is situated on a hillside between the forest and the slope. The site is surrounded by lush greenery in summer and covered by an overwhelming white snow in winter. As is a delicate site for a ‘Land(scape) Mark’, one whose indefinite programming demands a



careful degree of deliberation. The location and triangle shape of the stage was only determined after precise examination and deduction of the site condition, to minimize the impact for the existing vegetation and to

panoramic view of the Songhua lake, winding in-between the hills, clear or hazed by with the ever-changing mist, an exceptionally beautiful and magical. A pair of ovals openings cut through the volume, one on the roof leading sunlight and snowflake into the space, the other one on the floor intriguing interaction between people above and under the stage. The red cedar wall has been left untreated and is vivid in color shades, in contrast to the building’s dark Shou-Sugi-Ban exterior.

META-Project believes, designing in nature is to introduce an enlightening medium between nature and people.

The “Stage of Forest” is not just a look-out, it is a flexible public space that can

hold events, exhibitions, meetings and workshops... The building is intended to stimulate people to come up with more ideas of exploring their relationship with the nature, and itself also becomes part of the nature.



**Wang Shuo** Founding Partner of META-Project, META-Research, NUBIS-innovatio. Wang Shuo is an architect, researcher and curator based in Beijing. He received his B. Arch. from Tsinghua University in Beijing and M. Arch. from Rice University. He has practiced extensively in New York, Rotterdam and Beijing in the field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research. Projects located from New York, Chicago, London, UAE to major South East Asia cities, Shanghai and Beijing. He had worked for OMA on various large scale projects including RAK Gateway City - which won the 2009 Cityscape and International Business Award, BBC London headquarter strategic planning, and Interlace - a residential project in

Singapore. As project architect for OMA’s Beijing office, he worked on the tallest tower complex in Bangkok- MahaNakhon. Wang Shuo founded in 2007 with his partners, META-Project and META-Research, a duo parallel contemporary urban culture initiative, to carry on continuous and in-depth research regarding Chinese urban development; to bridge research and design with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 and to realize new prototype communities in contemporary cities. The work of Wang Shuo is characterized by a research driven approach. One of his main interests of research has been the unprecedented intensifying urban dynamics in the transformation of contemporary metropolis in Asia as well as new forms of emergent urban/collective spaces, and under such context, the shift of “contemporary” way of life through the progressive practice of young generation in the city. He has developed a series of urban research projects and is actively extending the idea into multiple dimensions of contemporary medium, including writing, video, website, art installation and exhibition. Often fueled by the outcome of META-Research’s sustaining investigation in the unique social-culture potential of the contemporary cities, META-Project’s practice aims at establish a new relationship between architecture and its social environment.

## 한국건축가협회 제31대 강철희 회장 취임,

건축계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건축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

건축의 진정한 가치와 건축가의 책임, 역할의 중요성 강조

한국건축가협회의 제31대 회장으로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교수이자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상 대표인 강철희 회장이 새롭게 취임했다. 지난 2월 21일 반포원 하모니 홀에서 개최한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이·취임식’을 통해 취임한 강철희 회장은 건축의 진정한 가치와 건축가의 책임,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강철희 신임 회장은 이취임식에서 건축 시장의 정상화와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강력한 포부를 밝혔다. 강 신임회장은 “계속되는 불황으로 경기는 침체해 있으며, 폐업의 위기에 처한 회원이 늘어나고 있다”며, “시장 논리에 따라 청산해야 할 불공정한 상황과도 타협하게 되고, 결국 인류의 삶 자체를 위협하게 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건축계의 통합에 관하여 강철희 신임회장은 관련 협회와 폭넓은 연합을 통해 협업 기회를 증진하는 것은 물론, 한국건축단체인협의회(FIKA)이 새롭게 태어나도록 주도하여 새로운 시작으로 건축계의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또한, 강철희 회장은 “지난해 UIA 2017 서울 세계건축대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했던 대한민국 건축가들의 자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보다 더 힘쓰겠다”며 “아시아는 물론 새로운 시장을 우리 스스로 개척해 나아가야 할 때다”고 덧붙였다. 강 회장의 말인즉, 실력과 감각을 갖춘 건축가라면 그 누구라도 자신의 전기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젊은 건축 인재 양성에도 협회의 역량을 집중시킬 것이다. 국제적으로도 미국, 일본 건축가협회 등과 정기협의를 갖고, 그 외의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과 협약과 상호교류를 통해 국내 건축가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 회장은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건축, 철학이 있는 건축을 통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반세기 이상 지켜온 협회의 전



진”이라고 강조하며, “지역 건축가회 회장을 당면적 이사로 추대하여 지역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이사회와 위원회를 분리하여 행정과 전문 분야의 운영 효율성을 높여 협회의 내실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강철희 회장은 2018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한국건축가협회회장의 임기를 수행한다. 이날 이·취임식에서는 제60회 회원선출 선거를 통해 선출된 박재유 신임수석부회장(주.제이유건축사사무소), 장윤규 신임연구부회장(국민대학교), 김용성 신임사업부회장(국민대학교)도 함께 취임했다.

강철희 회장은 홍익대학교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1984년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상을 설립하여 현재 대표를 맡고 있으며, 현재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교수로 몸담고 있다. ‘공간 연출’, ‘공간창조’라는 건축철학으로 올림픽공인 펜싱경기장을 설계하였으며, 차별화된 체육시설에 대한 노하우로 대구월드컵경기장, 고양종합운동장, 중국 복단대 100주년 기념 체육관, 강원대학교 건강스포츠 교육센터 등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한국철공관 구조학회 기술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이 외에도 백마고지 전적비 및 기념관으로 한국건축가협회상(올해의 건축 BEST 7)을 수상하였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활발한 작품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공간을 설계하는 것이 건축이지만 그 곳에 들고 날 사람들의 경험과 행동, 생각과 관계까지도 조형해야 한다는 신념을 내비친다. 대한민국의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폭넓은 작품 활동과 함께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는 제법 인지도 높은 현장 건축가로 손꼽힌다.

한국건축가협회는 지난 1957년 한국건축작가협회로 창립하여, 60여 년간 대한민국 건축문화의 진흥과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최고의 건축단체이다. 한국건축단체연합(FIKA)은 국내 건축계를 대표하는 건축3단체(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축계의 현안을 공동으로 해결에 나가고, 국제 협상 및 UIA 등의 국제기구에 공동으로 참여하기 위해 2003년도에 설립한 기구이다. **▲**

**비비안안 · 김용삼** 편집자  
**강철희**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교수,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상 대표  
**자료** (사)한국건축가협회

